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평소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강력 반대하던 대구의 한 유지가 최근 사업차 중국 단둥을 자주 여행하면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김정일이 수중에 들어가든 군사용으로 전용되든 무조건 쌀을 보내야 한다"고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역설하는 바람에 다들 놀랐다고 한다.

이른바 '친북좌파 정권'의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불만을 털어놓던 대표적인 TK인사인 그가 이처럼 변한 데는 현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이념이나 정권을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동정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진보·보수 따로 있다

이와는 달리 나는 최근 어느 토론회에서 "통일도 하나의 옵션(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한 진보적인 학자의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고 장준하 선생 같은 순진한 민족주의자가 유신정권의 기만적인 7·4남북 공동성명에 속아서 "모든 통일은 다 좋은 것"이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이 공극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렇다면 적어도 분단의 특수성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당분간 '민족'과 '통일'이라는 때론과 낡은 명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곧 남북 협도를 연결하는 시운전을 한다면 대견스럽다.

'민족'은 허위의식인가

의를 내세운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등장한 이후에도 민족이라는 본능은 '진정한 것'이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이 공극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렇다면 적어도 분단의 특수성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당분간 '민족'과 '통일'이라는 때론과 낡은 명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곧 남북 협도를 연결하는 시운전을 한다면 대견스럽다.

이와 연계하여 40만 톤의 쌀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소식도 반갑다. 어쨌든 굶주린 북한 동포가 조금이라도 허기를 덜 수 있을 테니까.

유니세프 후원금 처럼 편하게

아울러 전라남도 농민들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신선했다. 논 한 평에 5천원씩 후원금을 받아 5만 6만 평의 논에 쌀농사를 지어 11월쯤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인데, 가뭄이나 한미 FTA로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시름도 덜고 통일을 위한 소중한 초석을 놓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여겨진다.

인도적 차원에서 농민과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보수와 진보의 색안경을 들이대거나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일랑 재발 그만두기를 바란다.

유니세프의 후원금을 낼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나설 일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4·25 재·보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

4·25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무안·신안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등 4곳에서 국회의원 1명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8명을 선출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관심은 냉랭하다. 오죽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의 투표를 제고를 위해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선물하고 모범 유권자 상을 시상하는 등 이벤트를 실시했는가.

4·25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정치권의 한심한 구도와 행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가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은 당연하다. 소수 유권자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의 의미는 남다르다. 대선 8개월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측정하는 '정국 풍향계'의 성격이 띠고 있다. 민심의 소재를 정치권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 의식과 그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과 정치인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주권을 행사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는 발전하지 않는다. 참여없는 비관이나 무비관적 냉소주의는 우리 모두가 애써 피하고 선거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은 당연하다. 소수 유권자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정치를 왜곡시킬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해도 너무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무려 5만1천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한다. 특히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만2천317명을 늘릴 계획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할 마당에 공무원 증원이 바람직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증원의 규모와 그 필요성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을 4만8천499명이나 늘렸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6만여명이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 수가 국민의 정부 임기 말 88만5164명에 비해 무려 6만823명 늘어난 94만 5987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증원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여정부가 교원과 경찰, 교정, 소방, 재난안전 등 대민 서비스형 공무원을 크게 늘린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현재 우리의 공무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도 많은 편으로 결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특히 비효율적 분야의 인원 감축이나 공공부문의 민간 이양 등의 상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증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나라살림도 어렵다.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서민들은 삶에 지쳐 있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업 등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혁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몸집을 줄이는 것이 순리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앞서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에 나서야 한다. 중앙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 기능의 상당부분을 경쟁력이 강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에 빠른 속도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無等鼓

"세리 패이 마침내 감정을 드러냈다. 11번을 버디로 우승이 확정된 순간 손으로 눈물을 흘린 세리는 아버지가 그 린으로 뛰쳐나오자 드디어 웃음을 머금었다"

지난 1998년 7월 7일 프로골퍼 박세리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US오픈 우승 순간을 전 세계에 타진한 AP통신의 기사 리드다. 이어 최연소인 21살로 정상상을 정복한 소년이라고 발표했다. '태어나서 처음 물어봤다고..'

당시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 박세리의 '맨발샷'이다. 훈련으로 시키듯 타는 좋아리와 달리 새하얀 그녀의 발발분이 화면 가득히 잡혔었다. 'IMF의 시름'에 젖어 있던 한국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우승 순간이 그렇게 아직 생생하다.

한국의 외환고과가 텅텅 비었던 그때 박세리는 우승상금으로 눈물겨운 26만 7천500달러를 손에 쥐었다. 한국여자골프의 만년니, 구국회가 10년 전인 1988년 한국골프사상 최초로 LPGA 스탠더드

드레지스터클래스에서 골프로 달랠러 벌어들인 이후 10년만의 쾌거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 남녀 프로골퍼들의 외화벌이가 1천억원을 돌파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006년 말 현재 한국 여자골퍼들이 LPGA 및 일본프로대회와 아시아 투어에서 벌어들인 상금 756억4천378만원(남자골퍼 상금 252억4천897만원)을 포함 총상금액이 1천

8억9천275만원에 이르고 발표했다. 스포츠 단일 종목으로 해외상금액 1천억원에 골프가 처음이며 소형차 14만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박세리가 울음을 참으며 독한 밥 먹고 텀 버렸던 LPGA 무대

에 지금은 총 49명의 한국인-한국계 선수들이 뛰고 있다. 골프 황제 잭 니클로스(67)가 그녀들에게 보낸 찬사처럼, 한마디로 한국 여자 골퍼들은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달러와 영예가 그녀들의 몫이 되길 기대한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골프와 외화벌이



NGO 칼럼

노미덕



혹 당신은 '장애인은 참 불쌍하다',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왜 나와',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결혼은 왜 하나냐', '성적충동을 느끼는 장애인은 정신병자'라는 편견과 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들의 행복한 세상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같다.

장애인들은 4월과 12월이면 넘치는 관심을 받는다. 장애인의 달 4월, 연말 연시 나눔의 달인 12월이다. 이때만이라도 언론·방송에서 으름 극복장애인 특집을 찾느라 취재에 열을 올린다. 어찌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다. 그 한 해에 210만 장애인의 재활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함께 걷는 계기가 될 터이니,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시적인 돌봄

결국 보건복지부는 생색만 냈을 뿐 이들은 이용할 임무를 못 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6일 99.49%의 지지를 얻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들의 눈물, 피, 생명으로 만든 법이지만 이번 법에도 모든 장애유형을 담아내지 못했다. 2% 부족하다.

장애인 중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의사표시가 어려운 '저적 장애인=정신적 장애인'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정작 지적장애 당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야말로 장애인 간의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이제 장애·비장애가 아닌 통합의 시대다. 장애인은 불쌍하다고 내미는 선심성 손길을 원치 않는다. 회·노·애·락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의 대상이라는 것에 필자는 한마디쯤 항변하고 싶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분리·격리돼왔다.

유엔은 장애인 정책 목표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으로 정했지만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아직도 바깥나들이 한번 하는데 큰 맘 먹어야 한다. 이 화장한 볼날 꽃구경은 그림의 떡이다. 특히 5월부터 시행되는 중증 장애우 활동보조인제도는 전시기 정책일 뿐이다.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 보조인이 한 달 20~80시간 강도를 할애, 도움을 주는 것인데 전액보조가 아니다. 또 장애등급과 장애인능력에 따른 자부담 비율도 차등적이다. 월 60시간이면 하루 2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는데, 중증장애인은 외출준비를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린다.

활동보조인이 세수시키고 웃을 입히다 보면 갈 시간이다. 대부분이 기초수급권에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단돈 천원이라도 긴급할 관에 반박지 않은 자부담이다.

모든 욕구를 느끼는 통통한 인간으로 늘 존중해줘야 한다.

필자 연구소에서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아(지적장애인)이 워드 훈련을 통하여 통화책, 입시책 등을 입력하고 인터넷 등 정보에 열악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도서를 제공해주는 일을 한다. 장애인끼리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는 시대는 옛말이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잡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애인들의 변화의 힘은 끊임없는 도전이고 자립이다. 그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지식층은 함께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해야 한다.

장애는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늘 함께하는 당신은 더 아름답다. 무한한 인간능력을 보여주는 장애인의 평화로운 삶은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은 더욱 커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이사장)

엘리베이터 이용시 차분히 기다리는 습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를 이용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 대부분이 열림과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누르는 사람들도 많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문이 닫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도 말이다.

그 문구가 내게만 보이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제일 급한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승차 시 닫힘 버튼 누르는 행동이 1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3층에서 내려오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다. 공공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거나 절약하는 의식이 없는 것일까.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enrichment)



동물원 동물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되는 개와 달리 개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야생 동물의 경우 좀처럼 보기 힘든 데다 귀하다는 점 등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흥미를 끌기 위해 '비만 퇴치 프로그램'이라는 쉬운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엔리치먼트(enrichment)이고 우리 말로 해석한 것이 '행동 풍부화'다.

오랜 전통을 가진 외국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만든 것을 상품화해 판매하기도 한다. 사진 속 알집도 예전 농가에서 많이 만들어 쓰던 것이지만 요즘엔 보기 드문 것. 담당 사육사가 구해왔다. 만들었거나 구매한 것들을 하나씩 걸어놨더니 알집이 편안히 알을 품는 공간이 됐다. 당연히 이것도 엔리치먼트다. 잘만 하면 외국에 수출할만한 독특한 상품도 되지 않을까.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불법 대포차량 위험성 널리 알려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금과 유지비 등이 이유로 대포차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다.

대포차는 그 특성상 적법한 매매절차 없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인데 과거에는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회사가 부도난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도 많다. 대포차는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 사고가 나면 뺨소니로 처리돼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만대의 대포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고 한다. 땀만 안되는 유지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겠다고 해서 그런 차량을 운행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매매상 등에서는 대포차 구매자에게는 대포차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다.

▲유용하·광주시 서구 덕흥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